9. 갑술환국과 율곡·우계의 복향

왕자의 세자 책봉이 있기 한 달쯤 전에(숙종 16년 9월 30일), 대사헌 윤증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송시열은 사망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이와 성혼의 글을 읽고 익혀서 성현이 서로 전한 학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한평생 우러러 사모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이 남에게 헐뜯기어 문묘에 배향되는 줄에서 배척되었으니, 이는 연원이 끊어진 것이고 근본이 뽑힌 것입니다. …… 저는 송시열에게 젊어서부터 배웠는데, 불행히도 정의(情義)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편지의 일로 뜻밖에 시끄러운 꼬투리를 일으켜 수년의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망언이 죄를 재촉하여 욕이 어버이에게 미친 것은 말할 겨를도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번번이 조정의 논의가 어그러지고 갈라지는 것을 근심하고 한탄하시어 그 전후의 비답으로 나타내신 것이 매우 절실할 뿐이니, 신은 황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마침내 두 신하를 출향(黜享)하라는 명이 또한 마치 두 신하에게 죄를 돌린 듯하였습니다만, 아! 두 신하가 무엇을 간여하였습니까? 부족한 저의 망언이 없었다면 어찌 수년의 분쟁이 있었겠으며, 어찌 임금님의 이러한 처분이 있었겠습니까?"

윤증은 이렇게 자신이 분란을 일으켜 율곡 등이 문묘에서 쫓겨났음을 자책하고 자신은 경신환국 때 역모의 혐의로 사약을 받은 윤휴를 두둔하거나 감싼 적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주동하여 올렸다가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노량진에서 죽은 박태보(朴泰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다.

"박태보의 죽음을 듣고부터 심신이 놀라서 살 생각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조카입니다. 당초 슬픔 끝에 시름에 못 이겨 임금님의 밝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침식이 줄고 늘 안정하지 못하여 마치 실성한 듯합니다. 제가 초야에 천하게 틀어박혀 감히 분수를 넘지 못하여, 어리석은 충성을 다 말하지도 못하였으니, 저의 절개가 이지러지고 도리가 끊어졌습니다. 신의 죄는 또한 만 번이나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소문을 읽고 숙종은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상소문에 답을 하지 않고 하명하기를, "윤증의 상소를 보건대, 글 가운데 말뜻에 아름답지 못한 꼴이 많이 있으니, 매우 놀랍다. 도로 내어 주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소문이 올라오고 이틀이 지난 10월 2일 숙종은 윤증의 관직을 박탈하였다. 당시 윤증의 처벌과 관련하여 사헌부의 이러한 건의가 있었다.

"기해년(1659년, 현종 즉위년)에 예(禮)를 논할 때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가 처음에는 윤휴를 옳게 여기다가, 송시열이 크게 노하여 끊으려 하니, 윤선거가 양편이 다 옳다는 말을 만들고 윤휴를 군자라 하였으므로, 송시열이 분노와 원한을 품은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윤선거가 죽었을 때 송시열이 글을 만들어 제사를 올렸는데 윤선거의 평생의 흠을 죄다 거론하였습니다.

윤증이 처음에는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기며 배웠으나 뒤에 배반한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또 윤증은 윤휴가 죽은 뒤에 윤휴의 사위를 가서 보고 두세 번 탄식하고 상심하며 전의 일을 끌어대어 사화(士禍)에 견주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관리들이 다 함께 들은 것입니다. 송시열이 처형된 뒤에 흉악한 (노론의) 무리가 윤증을 원망하므로, 윤증이 나머지 위엄을 두려워하여 후환을 면하려고 제 아버지의 설(說)을 바꾸어 임시변통으로 꾸며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예론(禮論) 논쟁에서 실신(失身, 절개를 지키지 못함)하였다는 것은 더욱 방자합니다.

이이와 성혼이 출향 된 것은 말하자면, 실로 제사의 욕된 것을 없앤 것인데, 감히 그 조치가 연원을 끊고 근본을 뽑은 것이라는 따위 말을 상소에 올려서 뭇사람의 소문을 현혹하였으니, 관작을 삭탈하소서."

임금은 이에 "윤증은 뒷날 기치를 세우기에 바빠 앞장서서 상소하여 반복해서 속이므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관직을 빼앗은 것도 죄를 가볍게 해 준 것이다.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노론의 거두 송시열이 사망하고 소론의 대표 격인 윤증도 이렇게 관직을 박탈당하니 이제 조정은 남인의 세상이 되었다.

사관은 이날의 조치에 대해서 "아! 기사년(1689년, 숙종 15년)에 임금이 내린 말씀에서 이미 윤증의 일을 거론하여 죄를 양현(兩賢, 율곡과 우계)에게 돌려서 출향 하였다. 이에 윤증은 부끄러워 죽기에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인데, 상소하여 변명한 것이 엄밀하고 명확하지도 않다. 또 윤휴와 절교한 일을 논하여 다만 '그르고 망령되다.(謬妄)'는 두 글자로 스스로를 변명하였으며, 대계(臺啓, 대간의 보고문) 가운데에는 있는 탄식하고 상심하였다는 말은 그 감정의 흔적을 엄폐하기 어렵다. 상소의 끝에서는 개인적인 슬픔만을 거론하고 조금도 곤성(坤聖, 왕비. 인현왕후)을 언급한 것이 없으니, 아! 이것을 어찌 책망할 만하겠는가?"라고 하여 윤증을 비판하였다.

한 달 뒤(숙종 16년 11월 1일)에 신상화 등 관학생 70명이 상소하여, 윤증을 변호하고 아울러 율곡과 성혼을 출향 한 것이 옳지 않다고 호소하였으나 승정원에서 기각 처리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 3년 정도는 조정에서 율곡을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조정은 남인 관료들이 여론을 주도하였고 서인 관료들은 의견 제시를 자제하고 있었으며 노론은 조용히 바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숙종 19년 8월 6일 승정원에서 송시열의 제자로 청주에 사는 연최적(延最績)의 상소문을 올렸다. 그의 상소문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제가 어설픈 재주와 보잘것없는 견문으로 나이 겨우 20에 가례과(嘉禮科)에 올라, 4년 동안 벼슬살이를 하면서 녹봉만 쓸데없이 허비하고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재앙을 만나 대로(大老, 송시열)가 화를 당하였으므로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채 어두운 방에서 시사(時事)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귄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데, 자기 속을 털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사람이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금님의 구언(求言)을 요구하는 말씀이 정성스러움을 보고서 신은 감격하여

대단히 탄식함을 금할 수 없어 가만히 충성의 말씀을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 연최적은 모두 다섯 개의 사항을 임금에게 권했다.

그 첫째는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비록 높고 멀기는 하지만, 듣는 것은 낮고 가깝습니다. 군주의 움직임은 스스로 숨길 수가 없으니 만약 선정(善政)을 행하여 화목한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게 되고, 잘못된 정치만을 힘써 어긋나는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재앙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자만심을 억제하여 재앙이 변해서 상서가 되게 하고 나쁜 임금은 공경하지 않아서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요사이 해마다 흉년이 잇달아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데, 공경(公卿)과 시종(侍從)은 허세만 부리면서 궁곤(窮困)을 숨깁니다.”라고 하였다.

그 둘째는 ‘자신을 복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근사록』의 치도편(治道篇)을 근거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근본이 반드시 바르게 되면 법칙이 반드시 착하게 되니, 착하게 되면 집안이 화목하고 친하게 된다. 그런데 집안을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천하를 다스리기는 쉽다고 하였다.

이런 연최적의 상소문을 읽고 숙종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어떻게 보면 숙종의 당시 상황을 신랄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연최적은 이 항목을 서술할 때 율곡의 가르침을 끌어왔다. 그는 율곡이 성리학의 연원을 천명하고, 당시의 원로로서 임금에게 글을 올릴 때는 충성된 마음을 다하였다면서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추천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제3, 4권은 “제왕이 지녀야 할 표리(表裏)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료하게 한 것이니, 더욱 하천을 막는 기둥이며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라고 이를 만합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이를 소급하여 스승으로 삼으시고 그의 문장을 상고하여 거울로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율곡을 문묘에서 출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최적은 율곡을 배우라고 하니 임금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소문이었다.

연최적은 세 번째로 ‘검소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대체로 검소한 것은 덕(德)을 공경하는 것이며, 사치한 것은 안락하게 지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검소하면 마음은 작게 가지지만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치하면 마음은 크게 가지면서 도모하는 것은 허술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넷째로 ‘중도(中道)’를 세우라고하였다. 입니다. 송나라 말엽의 학자 채침(蔡沈)의 말을 이용하여 ‘중도라는 것은 천하 사람이 함께 소유한 것이기는 하나 군주가 세우지 않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알맞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주는 쟁반과 같으니 쟁반이 둥글면 물도 둥글게 담기며, 군주는 주발과 같으니 주발이 모가 나면 물도 모나게 담기며, 군주는 근원과 같으니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줄기도 맑으며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물줄기도 흐려집니다. 진실로 분노를 잘 경계하고 욕심을 잘 막는다면 지키는 것은 지극히 간략하되 여러 사람을 성취시킬 수 있으며, 조처하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되 사사로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섯째는 ‘정직한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을 나의 눈으

로 삼으면 밝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듣는 귀를 나의 귀로 삼으면 총명함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면 지혜로움이 생각되지 않는 것이 없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어지고 산같이 높아지게 되어 나의 기질(氣質)을 변화시켜 종신토록 갑자기 노여워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갑작스럽게 노여워하는 것이 어디에 그 뿌리가 있는지 드러내는 말이었다. 임금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 또 신하들의 정직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노여움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로 연최적은 '풍속을 돈독'하게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모든 관속(官屬, 관청에 속한 사람)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그 직분을 게을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고 무리를 지어 끌어서 모여들게 되니, 용렬하고 나이 어린 사람이 갑자기 금대(金帶)나 옥대(玉帶)를 두르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가 하면 나이 많아 머리털이 허옇게 센 사람은 낮고 미미한 지위에 오랫동안 있게 되니, 정상적인 임용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망령된 마음을 일으켜 아침저녁으로 꾀하는 것은 전부 자손들의 생업을 위한 것이며, 앉거나 눕거나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은 모두 편리하고 좋아하는 물건이 남아돌도록 하는데 마음을 두어 곳간의 곡식을 다 털어서 진기한 물품을 저축하여 두고서, 복식과 거마(車馬)를 아주 화려하게 한껏 사치스럽게 하고, 토지를 넓히고 부리는 사람을 늘려서 보는 것을 풍성하게 하며 듣는 것을 사치하게 하여 거처하는 집은 널직하고 진귀한 보물은 빛이 나며, 잔치를 차려 놓고 서로 어울리기를 매우 숭상합니다."

임금이 비록 신하들에게 비판의 글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이런 글을 읽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 임금의 정치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그 밑의 신하들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니 신하들도 연최적을 곱게 볼 리가 없다. 그런 일을 먼저 예상한 것인지 연최적은 이렇게 글을 맺었다.

"제가 마음속의 중요한 것을 터놓고 진달하며 외람되게 얕은 식견으로 천둥 번개와 같은 위엄을 함부로 저촉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전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어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나서는 추켜올려서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미워하며, 활을 당겨 침해함이 점점 성하여져서 제 말을 한 가지 증거로 삼아 저를 엄한 법령으로 논죄하며 저에게 위험한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러한 상소문을 보고 즉시 비망기를 내렸다.

"전 감찰 연최적이 감히 금령(禁令)을 인식하지 않고 앞장서서 상소문을 올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새로 생각해 내는 것이 흉악하고 참혹하다. 사연을 만드는 것이 음험하고 또한 한 글자 한 구절도 화(禍)를 전가시키거나, 해치고 어지럽히는 수단이 아닌 것이 없다. …… 마음 씀이 참혹하고 악독하기가 뱀과 살모사보다 심하니, 그 정상을 논하면 대단히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다. 이와 같은 난적(亂賊)은 법률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악한 일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의 비망기에 의거하여 즉시 국청(鞫廳, 범죄를 심문하는 관청)을 설치하여 엄중하게 실정을 캐내고 신문하도록 하라."

연최적의 상소문에 대해서 임금은 크게 화를 내고 큰 벌을 내리도록 하명을 하였다. 연최적이 지적한 것들이 하나하나 임금의 심사를 거슬렸기 때문이다. 이미 출향을 한 율곡과 우계의 건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도 임금이 부끄러워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율곡과 우계의 문묘 출향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자 숙종은 다음 해(숙종 20년, 1694년) 1월 18일에 율곡 등의 문묘 배향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표를 하였다.

"무릇 천하의 일은 반드시 일마다 다 착할 수는 없다. 간혹 앞에서 그릇된 것이 있더라도, 뒤에서 고치게 된 것이 있기도 하고, 오늘 옳은 것을 깨닫고는 어제의 그른 것을 깨우치기도 한다. 이미 그 그른 것을 살피고, 또 그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내가 이미 이를 행했으니 구습(舊習)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면서, 그 전해 내려가는 해독을 방치하고 날로 쇠약한 지경에 달려간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 문묘에 배향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당연히 배향해야만 하는데도 배향되지 못한 것은 한때의 잘못된 전례(典禮,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지만, 당연히 배향해서는 안 될 것인데도 억지로 배향하게 된 것은, 그것이 성묘(聖廟, 신성한 사당 즉 문묘)를 더럽히고 사문(斯文, 유교)을 욕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이와 성혼은 본래 덕망이 구비된 사람이 아니고, 또 숨길 수 없는 하자가 많았는데도 내가 이를 살피지 못하고서 함부로 배향하게 되었음을 면치 못했다. 그것을 '내가 이미 행했다.'고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시비를 밝힐 도리를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배향은 정치를 새롭게 추진하던 초기에 공론(公論)을 급히 따랐던 까닭이다.
다만 요즘 혹은 이이와 성혼을 위하여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혹은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서 즉시 출향(黜享, 위패를 치움.)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인심이 그릇된 풍조에 빠지고 의리가 어두워 꽉 막힌 날을 당하여, 뭇 소인들이 뛰놀려는 조짐과 사설(邪說)이 멋대로 시행되려는 근심을 미리 엄중히 방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에는 감히 이이와 성혼의 일로써 공의(公議)를 돌보지 않고서 앞장서서 의논을 제기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묘(聖廟)를 모욕한 죄로써 따질 것이니, 마땅히 이를 명백하게 포고하라."

율곡과 우계는 덕망이 갖춰진 사람들도 아니고 드러난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 임금 자신이 서둘러 배향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논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성묘 모욕죄, 즉 국가 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즈음 궁정 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숙빈 최씨(영조의 친어머니, 1670년~1718년)가 숙종 19년(1693년) 10월에 숙종과의 사이에서 왕자를 낳았는데 2개월 만에 죽고 숙종 20년 9월 13일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연잉군(延礽君) 금(昑)으로 훗날의 21대 임금 영조이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를 모시는 몸종이었다.
숙종은 왕세자를 책봉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지만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다. 기사환국 이후 주요 관료들이 조정을 떠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다시 집권한 남

인들은 역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인에게 보복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남인에게 권력을 대거 넘기고 독점시키면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1694년(숙종 20년) 봄에 새로운 환국, 즉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드러났다.

이해 초,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 폐비 민씨의 복위를 도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赫)·유복기(柳復基) 등 노론이 자제들이 비밀 자금을 모아 궁중의 환관, 궁녀와 내통하여 폐비의 복위를 꾀하려 한다는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일당이었던 함이완(咸以完)의 고변(告變, 반란행위를 고발함)이 있었는데, 남인 관료 우의정 민암은 이 사건을 이용해 노론을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다. 사건을 더욱 크게 확대시켜 서인의 많은 관리들이 연루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함이완의 고변은 민암이 시킨 것이었다. 이즈음 숙종은 폐비 민씨와 서인에 대해 동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유학(幼學) 김인(金寅)이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장희재(張希載, 희빈 장씨의 오빠)가 돈으로 김해성(金海成)을 매수해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 했으며, 신천 군수 윤희(尹憘)·훈국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역을 도모했으며 훈련대장이 이에 가담했고, 민암·오시후(吳始後)·육창명(陸昌明) 등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고발했다.

숙종은 이해(1694년) 4월 1일, 비망기를 내려 민암이 함이완과 수작하여 옥사를 확대하여 임금을 우롱하고 관리들을 함부로 죽이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국문을 집행한 대신 이하는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추방하며, 민암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할 것을 명하였다.

숙종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국을 단행하였는데, 이 일로 영의정 권대운·좌의정 목내선·우의정 민암 등 남인이 물러나고, 대신 영의정에 남구만·훈련대장에 신여철(吳始復)·병조판서에 서문중(徐文重)·이조판서에 유상운 등 서인(노론과 소론)이 대거 기용되었다. 이미 사망한 김수흥·김수항 등의 관작도 회복되었고, 송시열 역시 복권되었다. 남인들은 기사환국 당시에 처벌받은 서인보다 더 많은 수가 처벌받았으며, 이후 두 번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재집권한 서인 측 관리들과 유생들은 곧 율곡과 우계 두 사람을 다시 문묘에 배향하자는 복향(復享) 운동을 벌였다.

예를 들면 이해(1694년 숙종 20년) 4월 21일, 유학(幼學) 신상동(辛相東)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를 하여 복향을 요청했다.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은 도덕을 완비되고 학문의 연원이 송나라 정자·주자와 다름이 없고, 우리나라 오현(五賢)과 차이가 없는데, 사림에서 문묘에 향사(享祀) 하기를 청하여 온 지 50년이 지나서야 전하께서 능히 윤허하시어, 사문(斯文, 유교)을 일대(一代)에 밝히고 성덕을 천추(千秋)에 빛내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날 어진 이를 미워하는 간사한 무리가 때를 타서 불쑥 일어나 거짓을 가리켜 진실이라 하고 흰 것을 바꾸어 검은 것으로 삼으며, 시비를 어지럽히고 천심을 흔들어, 두 어진 신하가 마침내 출향(黜享) 하게 되었으므로, 성덕이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으니, 사림의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다행히 이 밝은 날에 만화(萬化)가 모두 새로워져도 두 신하의 문묘 종사만은 복구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하께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전하께서 망설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신상동은 억울하게 죽은 송시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고(故) 봉조하(奉朝賀) 신하 송시열은 네 조정에서 예로 대우한 원로로서 일대 사문의 종사(宗師,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가 되었으므로, 효종(孝宗)을 추모하고 전하께 보답하려 꾀한 것은 신명(神明)에게 묻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으나, 사람들의 말이 망극하여 도리어 임금을 낮추었다는 죄를 입어 마침내 충현(忠賢, 송시열)이 지하에서 억울함을 품게 되었는데, 이제 천심이 깨닫고 열 중의 부드러운 분부는 충령(忠靈, 충성스러운 신령 즉 송시열의 신령)을 위로할 만하였습니다.
이미 그 벼슬을 회복시키고 나서 또 제사를 내리어 근시(近侍,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측근)으로 하여금 가서 잔을 올리게까지 하시니, 성감(聖鑑, 임금의 안목)의 명철함이 여기에서 더욱 나타났습니다. 행장을 살펴서 시호를 정하도록 명하신다면, 성명(聖明, 임금의 밝은 지혜)이 회한(悔恨)하시는 정성과 유현(儒賢, 어진 유생 즉 송시열)이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던 충성이 후세에 함께 빛날 것입니다.”

숙종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시(賜諡, 시호를 내림)·사제(賜祭, 제사를 지내줌)·정려(旌閭, 정려문을 세워 표창함) 등의 일은 해당 관청을 시켜 품지(稟旨,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함)하여 거행하게 하라. 성묘(聖廟, 문묘)에 다시 배향(配享)하는 것은 자못 전도(顚倒, 앞뒤가 바뀜)하는 데에 관계되기 때문에 난처하다.”

율곡과 우계의 문묘 복향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신상동이 상소문으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복향은 배향을 철회했다가 다시 그것을 바꾸는 것이 난처하다는 답을 하였다.
이러한 신상동의 상소문이 숙종에게 전달되고 나서 한 달쯤 뒤(숙종 20년, 5월 22일)에 충청도 유생 임봉진(林鳳珍) 등이 상소문을 올려 이이와 성혼의 복향을 다시 건의했다. 이날 임봉진의 상소문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예조 판서 윤지선(尹趾善)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경기 유생들이 전후에 걸쳐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향(從享, 배향)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이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시골 선비의 한 상소로 인하여 본조(本曹, 담당 관청 즉 예조)에서 바쁘게 거행한다는 것은 자못 신중한 처사가 아니 오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여 특별히 처분을 내리신다면 실로 성덕(聖德)에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조판서의 건의에 대해서 영의정 남구만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양신(兩臣, 율곡과 우계)의 복향에 대하여 누군들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의 중대한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난날의 출향(黜享)과 오늘날의 복향(復享)에 있어 다 유생의 건의로 해당 관서가 그대로 거행한다는 것은 근신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신으로는 단지 신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니 모름지기 여러 대신이 다 이르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영의정이 자신만 대신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다른 대신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복향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남구만의 의견에 대해서 임금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을 하명했다.

"널리 대신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진실로 신중한 방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정직한 분들을 증오하는 무리들에게 속고 가려진 바 되어 두 분 선현으로 하여금 마침내 출향에 이르게 하였으니, 내가 일찍이 후회하고 한스럽게 생각했다. 만일 다시 그것이 뒤집힐 것을 염려하여 바로 거행하지 않는다면 끝내 흠이 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니, 특별히 두 분 선현의 복향(復享)을 명한다."

이렇게 율곡과 우계의 복향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임금으로서는 두 대신의 출향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신속히 복향 하여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도록 하명한 것이다.

이러한 복향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상소문이 4일 뒤에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곧바로 전달되었다. 진사 한종석 등이 올린 상소문에는 율곡과 우계의 복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숙종은 이 상소를 물리칠 것을 명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기왕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선정(先正, 선대의 현인)을 복향하는 오늘에 있어서 지난해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인(正人, 현인)을 미워한 죄상을 명백하게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종석 등이 사설(邪說)을 늘어놓아 여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이현령(李玄齡)을 먼 변방으로 유배시키라."

이현령은 충청도 유생 임봉진 등이 상소했을 때(숙종 20년 5월 22일) 언급했던 인물로 상소문을 올려 율곡 등을 헐뜯고 무함하였었다. 그는 기사년(1689년, 숙종 15년)에 성균관과 사학(四學) 유생의 대표가 되어 상소문을 올리면서, 율곡과 우계를 헐뜯고 욕하며, 문묘에서 출향할 것을 요청했었다. 임금 생각으로는 이현령에게 죄를 주지 않아 이러한 잘못된 상소문이 올라오므로 이현령부터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 6월 23일 드디어 율곡과 우계의 문묘에 배향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이들의 집에서 제사를 올렸고 이어서 각 지방의 향교에 포고문을 내리고 순찰사는 위판(位版, 나무로 만든 위패)을 만들어 나누어 주도록 했다. 그리고 길일(吉日)을 선택하여 이날 문묘 배향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숙종은 다음과 같이 포고문을 발표했다.

“왕은 말한다. (중략) 지난번에 편당하는 사람이 조정을 담당하매 교묘하게 참소하는 말이 나의 뜻을 현혹함을 면하지 못하여, 상례의 제사를 오래 폐하였다. 그래서 두 영령(英靈)이 편안히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고, 우리의 도(道)가 장차 궁해지게 되매 선량한 선비들의 숨은 고통이 한이 없었다. 비록 거짓말이 올바른 것을 더럽히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죄를 면할 수 없다.
돌아보건대, 한쪽 말만 듣는 통에 간계(奸計)를 부리게 된 것이기에, 내 마음에 부끄럽게 여긴다. 이번에 경장(更張,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함) 하는 날을 맞이하여 즉시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여, 무릇 갖가지의 죄악을 다스리고 충성을 표양하는 일을 혹시라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는데, 하물며 이런 유현(儒賢, 현인 유학자)을 존숭하고 덕을 숭상하는 일을 더욱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이미 마음속에 말없이 결단하여 새로워지기를 도모하여 구습을 버리기도 했기에, 아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누누 한 글발과 긴 상소문을 올리기를 기다릴 것이 없었다.”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해 복향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율곡 등을 복향 하는 데 있어, 다시 상소문을 받아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소문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6월 25일에는 전라도 유생 이준 등이 율곡 등의 문묘 배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하다가 여러 차례 각하를 당하자 행패를 부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그들을 무엄하다고 꾸짖고 그들의 상소문을 받지 말도록 명했다. 6월 29일에는 금구 현령 박성의(朴性義)가 이준을 사주하여 율곡 등을 헐뜯는 상소문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임금은 지평 이정익(李禎翊)의 건의에 따라 이준을 유배 보내고, 박성의를 관리들의 명부인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9월 3일에 조정에서는 영남 유생 안일리(安日履) 등이 상소하여 율곡 등의 문묘 출향을 다시 제기하는 상소문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논했는데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교시를 내렸다.

“내가 깊이 지나간 일을 뉘우치고 이번에 이미 복향(復享)을 했는데, 안일리 등이 방자하게 상소했음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계획이니, 변방의 먼 곳에다 정배(定配)하라.”

이에 안일리의 상소 건을 보고한 승지 김구가 말하길, “먼 곳으로 유배하는 죄는 정거(停擧, 과거 응시 금지) 하는 가벼운 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상소를 들여와 하람 하시고 조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안일리의 유배형에 대해서 상소문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은 “그것은 애매하고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니니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율곡 등의 문묘 배향에 대한 숙종의 의지는 이미 확고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1694년, 숙종 20년) 9월 13일, 숙빈 최씨가 아들(후일의 영조)을 낳았다. 인현왕후는 이보다 이른 음력 4월 12일 삼불거로 이혼이 취소되어 자동으로 복위된 상태였다.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소론의 반발이 심하여 6월 1일이 되어서야 왕비로 다시 등극했다. 이 때문

에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왕세자를 낳은 희빈 장씨는 소론이 지지하고 있었고 인현왕후는 노론이 지지하고 있어서 두 여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
이로부터 7년 뒤 1701년(숙종 27년) 8월에 인현왕후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때 임금은 왕비를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 희빈 장씨를 자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다음 해 1702년(숙종 28년) 10월 숙종은 김주신(金柱臣)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 왕비가 곧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김주신은 박세당의 문인으로 소론 집안 출신이었는데, 나중에는 노론 지지로 돌아섰다. 갑술환국 이후로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었다. 초기엔 소론 관료들이 중용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권력은 점차 노론 쪽으로 기울어가고, 소론의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었다.